주간브리프
WEEKLY ISSUE BRIEF 2025. 6. 16.
Vol. 23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 2025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앞서 6월 4일 통계청의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결과, 전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임. 품목별로는 곡물·축산물 상승, 채소·과실 하락세

- 채소류는 봄 배추·무 생산량 증가, 2025년산 양파·마늘 공급량 증가 등으로 6월에도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여름배추(7월~10월 출하)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음. 또, 올해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배추 재배 어려움 가중 등으로 인해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8~9월 시장 공급량 감소 우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대상 사전 수매계약 체결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함. 또, 생산이 증가한 봄배추 등을 이용해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비축(배추 2만 3천 톤, 무 7천 톤)하여 수급 불안기 및 추석 성수기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
  -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양파는 시장격리(3만 톤), 생산자 중심 품질 관리*, 출하 연기(5천 톤), 수출지원 등을 통해 시장 공급량을 관리하여 가격 안정화 추진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 등)에서 품질이 낮은 양파(4천 톤)는 시장 출하 억제

- 사과·배 등 과일류는 2024년산 저장물량 분산 출하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 올해 산불, 저온·우박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과 재배면적은 473ha로 전국 재배면적의 1.4% 수준이고, 저온 등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도 평년보다 미미하여 착과 등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평년 수준의 생산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축산물은 지난해 공급 과잉 및 할인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 5월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하였으나, 평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돼지고기는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수입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에는 국내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닭고기는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영향으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수입업체들이 2~3개월 분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계란은 3월 하순부터 산란계의 소모성 질병 발생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6월에는 생산성이 회복되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태국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한편, 병아리 입식 확대, 종계 생산주령 연장 등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힘.
  - 추경으로 확보한 정부할인지원 예산(총액 2,280억 원)을 활용해 여름휴가철 및 추석 등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에 집중 지원하고, 전통시장, 수퍼마켓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5.06.09.)

세계 경제 동향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2.4% 상승 ▌2025-06-11 미국 노동부; 한국경제

- 6월 11일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발표하였음.
  - 전월 대비 5월 CPI 상승률(0.1%)과 근원 CPI 상승률(0.1%) 모두 시장 전망치(각각 0.2%, 0.3%)를 밑돌았음.
  - 식품·주거비 등 일부 항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일부 내구재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제한함.
- 식품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였으며, 특히 달걀 (△41.5%)과 외식 (△3.8%) 등에서 크게 상승함.
- 전년 동월 대비 천연가스와 전기의 가격이 각각 15.3%, 4.5% 상승하였으나, 휘발유 가격이 12.0% 하락하면서 전체 에너지 부문 물가는 3.5% 하락하였음.
-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 주거비 및 자동차보험 부문이 각각 3.9%, 7.0% 상승하며 큰 폭의 오름세를 보임.
- 에너지 가격 하락과 식품 가격 상승이 혼재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으로 보임. 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하반기부터 재고 소진과 함께 물가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주간브리프 vol.19).
- 6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으나, 안정적 물가흐름이 관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임.

▌2024~2025년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국내 경제 동향

2025년 4월 경상수지 57.0억 달러 흑자 ▌2025-06-10 한국은행

- 2025년 6월 10일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경상수지(잠정)」를 발표하였음. 4월 경상수지는 57.0억 달러 흑자로, '23년 5월부터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
  -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 확대 (14.9억 달러→57.0억 달러).
  - 단, 전월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34.4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91.4억 달러→57.0억 달러), 이는 서비스 수지 적자 증가 및 외국인 대상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상품수지) 수출이 585.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 수입은 495.8억 달러로 5.1% 감소하면서 89.9억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수출: 반도체(△16.9%), 선박(△15.6%) 등이 상승세 주도
  - 수입: 반도체제조장비(△26.8%), 수송장비(△20.8%)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류(▽17.3%)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10.4%)이 감소하면서 수입 총액은 감소함.
- (서비스수지) 기타사업서비스*(▽15.1억 달러), 지식재산권 사용료(▽8.2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28.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 (본원소득수지) 전월 대비 34.2억 달러 감소하면서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외국인 대상 배당 증가의 영향으로 배당소득이 '25년 3월 26억 달러 흑자에서 4월 6.5억 달러 적자로 전환
- (이전소득수지) 2.6억 달러 적자

▌2023년~2025년 4월 경상수지 ▌

단위: 억 달러



세계 농업·농정 동향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연구 혁신 전략 2025' 발표 ▌2025-06-06 농림수산성

- 일본 농림수산성은 6월 6일 식량안보 강화와 환경과의 조화를 목표로 한 '농림수산연구 혁신 전략 2025'를 발표함.
  - 일본 농림수산연구 혁신 전략은 2019년부터 매년 수립되며, 2025 전략은 2025년 4월 결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 근거한 첫 번째 전략(주간브리프 2024 Vol.24.)
  - 인구 감소, 농업인 고령화 상황에서 식량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 대두
  - 농업의 긍정적 환경 기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이중 목표 아래 혁신 전략 추진
- '농림수산 연구 혁신 전략 2025' 기술 개발 계획을 통해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고,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혁신 선순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스마트 농업 기계 및 작물 재배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작업 시간 감소,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기대
  - 산·학·관 협업을 통해 품종 개발 촉진, 스마트 육종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개발 속도와 정확도 제고
  - 국립연구기관 기능 강화 및 스마트농업 지원, R&D 플랫폼 조성을 통해 혁신 선순환 구조 기반 강화
  - 신기술 도입 이후의 미래 농업 경영 모습을 시각화하는 농업기술 맵 제공을 통해 농업 혁신 방향 제시
- 농림수산성은 본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친화적 농업 시스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연구 혁신 전략 2025' 주요 내용▐

주요 전략	내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확산	ICT를 활용해 농작업 효율화·노동절감,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경영관리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신품종 개발	다수확·고온내성·질병저항성·스마트농업 기술 적합성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품종 개발을 산·학·관 연계로 추진
친환경 기술 개발·확산	탄소 중립, 농약 및 비료 사용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 추진
AI·IoT 정보 기반 정비 및 데이터 활용	일본 전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 구축, API 공개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
기술 개발	유전자 편집, 차세대 단백질원 개발 등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바이오산업 창출 육성
임업 부문 연구 전략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임업 기술 개발
국제 연구 추진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 기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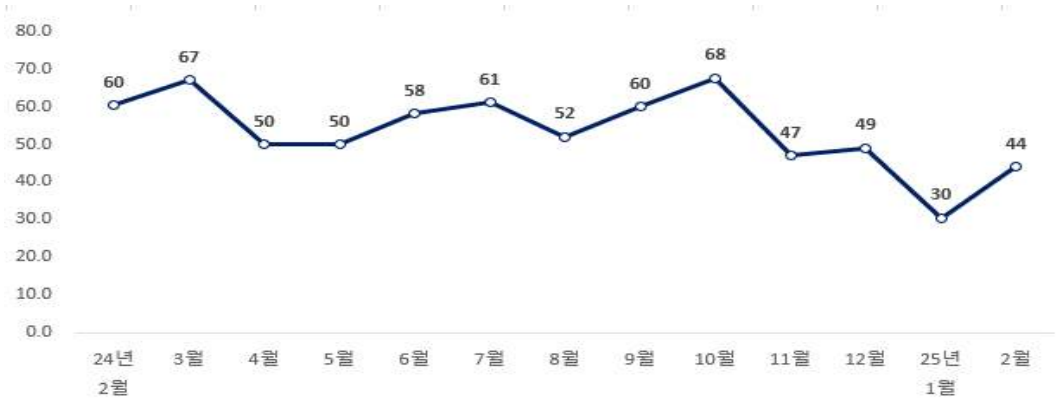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EU 농식품 무역 흑자 증가 ▌2025-06-05 European Commission

- EU 농업 및 농촌 개발국(DG AGRI)이 6월 5일 발표한 2025년 2월 EU 농식품 무역 모니터링에 따르면, 무역 흑자는 44억 유로로 전월 대비로는 47% 증가하였으나, 코코아·커피·과일·견과류 등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동월보다는 28% 감소한 수치임.
- 2025년 EU의 2월 농식품 수출액은 196억 유로로,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였고, 1~2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간 대비 3%가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 증가 지역은 영국(+4%, 3억 2,200만 유로), 미국(+9%, 4억 1,300만 유로) 등이며, EU 내 곡물 수출 급감(-99%,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감소 영향 등)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15% 감소(3억 3,000만 유로)
  -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코코아·커피·향신료 수출이 52%, 과자·초콜릿은 19%, 유제품은 5% 증가
  - 곡물 수출액 30% 감소, 과일·과채 가공품 6% 감소, 올리브 및 올리브 오일 11% 감소
- 2025년 2월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152억 유로로, 전월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하였고, 1~2월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 증가함.
  - 코코아 가격 급등으로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수입은 73% 증가, 반면 곡물·유채씨 수입 감소로 우크라이나는 10%, 러시아는 77% 수입 감소
  - 품목별로는 코코아·커피·향신료 수입이 59%(24억 7,700만 유로), 과일·견과류는 20% 증가
  - 반면, 유채씨·단백질작물은 7%, 설탕 및 이소글루코스(고과당 옥수수시럽)는 46%, 올리브 및 올리브오일은 31% 감소
- 전체적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나, 일부 국가 및 곡물 중심 수출 감소가 관찰되며, 수입은 고가 품목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4년~2025년 무역 흑자▐

단위: 억 유로



국내 농업·농정 동향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8% 하락 ▌2025-06-07 유엔 식량농업기구 ; 농식품부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5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8.3포인트) 대비 0.8% 하락한 127.7포인트를 기록함.
  -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하여 발표
- 곡물, 유지류, 설탕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견인하였지만, 육류와 유제품은 가격 상승세를 이어감. 이는 주로 공급 여건 개선, 수요 변화, 주요 생산국의 기상 조건 및 정책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곡물류는 109.0포인트로 전월 대비 1.8%, 전년 대비 8.2% 하락함. 이는 아르헨티나·브라질 등지의 옥수수 생산 증가, 미국의 풍년 기대 등으로 인한 공급 확대 및 밀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때문으로 보임.
  - 유지류는 152.2포인트로 전월 대비 3.7% 하락함. 동남아시아 및 남미 지역의 계절적 수확량 증가와 미국 등지의 바이오연료 수요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하지만 전년도의 공급 제약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수요 대비 제한적인 공급 증가 폭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1% 가격이 상승함.
  - 육류는 124.6포인트로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6.8% 상승함. 소·양·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수출 가격 상승이 있었음. 특히 돼지고기는 독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에 따른 수출 재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됨. 반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닭고기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닭고기 가격 하락함.
  - 유제품은 153.5포인트로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21.5% 상승함. 주요 원인은 아시아·중동의 수요 증가에 따른 버터·치즈 가격 상승과 중국의 전지분유 수입 수요 확대로 보임.
  - 설탕은 109.4포인트로 전월 대비 2.6% 하락, 전년 동월 대비 6.6% 하락함. 하락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인도·태국 등 주요 생산국의 조기 우기 진입으로 인한 2025/26년 생산 증가 기대 등이 있음.

❖ 세계식량가격지수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의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곡물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수임. 최근 들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육류,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련 가공식품 업종 및 외식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2025년 세계식량가격지수 ▌

단위: 포인트

